

전국 최초 문화특화지역 '남원'

문화도시사업 대상지로 확정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에서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견을 거쳐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19개 지자체 가운데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26일 승인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 말경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되며, 위해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과정의 전문가 자문, 도시 간 교류, 주요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와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는 소리문화를 중심으로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시민자립 기반을 확장하는 문화기반 조성으로 예비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남원시는 지역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남원시민들의 높은 문화 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14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원 문화버스.

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특화지역사업을 추진해 왔고, 5년차를 맞은 올해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됨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남원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소리문화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 지정신청서를 지난 8월말 문체부에 제출해 현장실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 문화특화지역사업의 5년차인 마지막 사업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여 운영한 '판페스티벌'의 과정

과 결과가 앞으로의 남원문화도시의 비전을 제시할 만한 대표적인 성과로 소개되었으며, '1300년의 목소리' 등의 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고, 행복해지는 소리문화 시민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은 "문화도시 남원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본격적인 예비사업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어린이 놀이방 안전 관리 이렇게 하세요"

문체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운영지침 마련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지침을 마련, 오는 28일 행정안전부 등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키기구(파파기차, 붕붕뿔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소방청(청장 정문호)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운영지침에는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 신고, 유키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운영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 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자세히 담았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악기 디지털 음원, 마음껏 갖다 쓰세요... 라이브 샘플러 형태로 제공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변형·활용 가능

국립국악원이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리뉴얼해 26일 공개했다. 국악기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 제작이나 음악 제작을 원하는 이들이 아쉬워하는 국악기 음원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립국악원은 2009년부터 가야금, 대금, 아쟁, 장구, 태평소 등 주요 국악기의 음원을 서비스해왔다. 하지만 음을 꾸며내는 모양새인 '시김새'나 특수 악기의 음원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했다.

국립국악원 관계자는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이 히트곡 '아이돌' 국악버전을 선보이면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면서 "대중음악에서도 음악 창작인들과 애플리케이션 제작자들의 국악기 음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접목하는 시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추세에 맞춰 국립국악원은 이번 국악기 디지털음원 서비스의 리뉴얼을 통해 주요 악기 외에 휘타악기, 제례악기, 연례악기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악기 50종의 음원과 시김새를 '라이브 샘플러'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이용



국립국악원 '죽두'.

해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변형·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국립국악원 임재원 원장은 "리뉴얼 오픈하는 국악기 음원을 활용해 음악산업뿐 아니라 국악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갖춰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음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돼 국악이 모든 이들에게 더욱 친숙한 음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악기 디지털음원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표시 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뉴시스

1897년우 한가위. 자취들이 울타리 안 갈
 늦추어, 왁서 아침인사를 하기도 건어, 묵색
 옷어, 땀기꼬리를 늘인 아이들은 송편을 익어,
 물고 마를 길을 쏘다누며 기뻐서 날뛴다.

KCC 박경리체

"박경리 작가의 문학세계 잊지 않기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박경리체' 무료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오늘 공유마당을 통해 박경리 작가의 손글씨로 만든 'KCC 박경리체'를 공개한다.

KCC김춘체(2017년)에 이어, 이번에 공개되는 KCC박경리체는 변경금지 조건으로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마당 사이트의 '무료 폰트' 코너에서 볼 수 있다. KCC박경리체는 국민 손글씨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 토지문화재단(이사장 김영주)을 통해 손글씨를 기증받아 제작된 폰트다.

박경리 작가의 유족인 토지문화재단

김영주 이사장은 "국민들이 박경리 작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글씨체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복원된 것 같다"며 "더구나 올해는 박경리 작가 추모 10주기인데 KCC박경리체가 제작, 배포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박경리 작가의 손글씨체를 통해 국민들이 박경리 작가의 문학세계에 공감하고 이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료 폰트를 개발하여 제공해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